

송상용, 나의 지적 여정*

최형섭 · 박지영 · 김슬기 · 이주영 인터뷰, 최형섭 · 김슬기 편집

1. 어린 시절과 정규 교육

우선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나는 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해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937년이에요. 아시아가 전쟁에 휩쓸릴 때였죠. 할아버지는 농부였고, 외할아버지는 한의사 겸 한학자였어요. 아버지는 경기도 이천, 어머니는 용인 분이에요. 아버지는 가난을 못 견뎌 소학교 3학년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밀바닥부터 시작해 내가 태어날 무렵에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해방 후에는 을지로 3가에서 평화전업사라고 전기 부품을 팔고 공사도 맡고 하면서 동양건전지 공업 주식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전쟁만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5.16 때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부정축재자로 걸렸을 거라고 했죠.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일이 없지만 딸만 둘이었기 때문에 남자 옷을 입고 할아버지한테 중국 고전을 배웠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학교 한문 선생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이 글은 지난 2015년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송상용 교수 자택에서 최형섭(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박지영, 김슬기, 이주영(이상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이 송상용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인터뷰는 오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여기에는 전체 인터뷰 내용 중 송상용 교수의 지적 여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편집해 신는다. (발췌 편집인 최형섭)

형제들이 많았나요?

누이가 위로 셋, 아래로 둘, 다섯이 있었는데 셋이 남았고 아들은 나뿐이었으니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세 살 때 외할아버지께 집안 아우와 함께 무릎 꿇고 천자문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소학을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제대로 하자면 사서삼경까지 읽어야 하지만 내가 케케묵은 것 배우기 싫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후회막급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간 게 1944년이니까 일제 강점기에 1년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나 내 일본말은 영이, 바둑이 수준이었고 해방 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나요?

구한말에 문을 연 광희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일제 말 미군 공습에 대비한 소개(疏開)로 간 데가 경기도 광주의 광주 국민학교였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도 2년을 더 다녔고 서울 집으로 돌아 온 다음에는 성동구에서 제일 좋다는 무학 국민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그 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월반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5학년을 마치고 경동 중학교에 찾아가 교장실에서 검정 시험을 본 다음 입학시험을 쳐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2학년 올라가자 6.25 전쟁이 나서 경기도 광주의 외할머니 고향에서 인민공화국 석 달을 살았습니다. 학교에는 나갈 수 없었지만 집안 형과 산 속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오줌통 장군’으로 가사 바꿔 불렀어요. 서울이 수복되어 집에 가 보니 아버지가 내무서에 잡혀가 정치보위부에 넘어간 다음 행방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 후퇴 때는 차가 끊어져 온 식구가 걸어서 부산을 향했는데 길이 막혀 연고도 없는 유성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1년 지었어요. 서울특별시 대전종합 중·고등학교를 1년 반 다니고 휴전이 되어 서울에 복교했습니다. 원래 병약했던 어머니가 대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5살에 전쟁 고아가 된 것이죠. 이모가 살림은 해 주셨지만 여섯 식구의 세대주 노릇은 쉽지 않았어요. 2년 공백이 생긴 중·고등학교 교육을 보충하려고 학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학원이요?

대전에서는 미국 공보원장이 만든 영어 학원을 다녔고 환도해서는 서울고등학교와 ELI에서 영어와 수학, 아카데미에서 강세형 국회의원과 김정진 서울대 교수에게 독일어, CEF에서 이휘영 서울대 교수에게 조금 불어를 배웠지요.

그게 모두 대학 입시 준비였었나요?

그 때는 입시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대입 준비는 1954년 겨울 석 달에 집중해서 들어갔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학자가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나는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장사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사다 읽었는데 몇 백 권 모은 책들이 6·25 때 다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교과서를 사다가 과학·수학 공부를 했고 실험도 한다고 설쳤지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과학부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배정된 데가 화학반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복학해 가지고 3학년 되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화학반장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고민을 전혀 안 하고 대학도 화학과를 간 겁니다.

2. 서울대학교 시절

대학에서 자연과학 전공을 택하신 것은 특별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 학기 마치고 보니까 화학은 괜찮은데 수학하고 물리학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걸 보충하려고 1학년 방학 때 절에 들어갔죠. 일엽 스님이 있는 수덕사에 갔는데 절에서 받아 주지를 알아 그 아래 수덕 여관에 들어갔어요. 유명한 동양화가 이응로 화백의 부인이 하는 여관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고시 공부를 했는데 나는 두 달 동안 혼다(本田)의 『물리학 통론』과 글랜빌(Glanville)의 『미적분학』 연습문제를 다 풀었죠. 생화학할 할 생각으로 생물학과 강의를 다섯 과목 들었습니다. 3학년 때는 물리 화학과 유기 화학을 장세현·장세희 형제

분이 가르치셨어요. 매주 시험 보고 실험은 밤 새워 하고, 그래도 모자라 일요일에 나가서 실험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제일 어려운 3학년 고비를 끝 마쳤지만 고민이 깊어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나는 유기 화학에 질렸습니다. 구조식이나 외우는 게 무슨 학문이나? 화학은 이제 하기 싫다. 그럼 뭘 하나? 방향을 바꿔야 되겠는데 과학이 싫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써 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과학과 인문학의 중간 영역을 개척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화학과 시절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화학과에서는 교육을 참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문리대는 자유분방한 대학이라 교수들이 강의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가 마지막 절을 “오늘 휴강, 내일 중강, 공공대학교”로 고쳐 불렀던 말이에요. 강의도 노트 불러줘서 받아쓰는 식으로 했는데 화학과는 제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물리학과는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해 대학에 적을 둔 분들이 많아 미국 유학을 가는 바람에 강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학과는 교토 대학 정교수로 있던 이태규 선생이 해방 직후 나와 만들었고 교수진도 완전히 다 대학 졸업생들로 찼거든요. 일부는 미국 유학을 갔지만 남은 분들도 다 정규 교육 받은 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1학년 때만 번역서로 배웠고, 2학년부터는 완전히 원서를 썼어요. 보통 진도가 하루 한 과목에 50페이지 정도 나가니까 읽어 와야 따라가고. 우리는 다방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죠.

3. 과학사·과학철학과의 만남

과학사·과학철학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사턴(George Sarton, 1984-1956), 코넛트(J.B. Conant, 1893-1978), 쿤(Thomas Kuhn, 1922-96)의 책을 읽고 알게 됐죠. 뭘 하든 철학이 기초라는 생각이 들어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학사 편입하면서 박종홍 선생께 과학철학, 과학사, 과학저널리즘 세 가지 가능한 길이 있는데 2년 공부한 다음에 결정하겠

다고 했어요. 박종홍(혜켈, 하이데거, 한국철학사), 최재희(칸트), 김준섭(화이트헤드, 라슬, 카르납), 박홍규(플라톤, 베르크손), 김태길(듀위, 윤리학), 조가경(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4.19 학생 혁명이 터졌습니다. 교문을 박차고 나간 데모대를 인도로 따라가다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5분 끼어들었습니다. 동아리 후진사회연구회(지도교수: 최문환, 박희범)에 들어가 날마다 술 마시며 나라 걱정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후배의 간청을 받아 민족통일연맹 준비를 도왔지만 가지도 않은 창립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뽑혔다고 발표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용공 혐의로 체포되어 종로서에 40일 갇히기도 했습니다. 철학과 2년은 공부도 제대로 못 했고 재미 없었습니다. 졸업 논문은 ‘과학적 생명론’이었고 석사 논문은 ‘Darwinism과 목적론’을 썼어요.

당시에 과학사·과학철학 관련 책이나 논문을 접하기가 쉬운 편이었나요?

아주 어려웠어요. 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 책값을 송금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옥스퍼드의 블랙웰 서점과 거래를 터서 책을 구했고 대금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보냈습니다. 1964년 미국 과학사학회에 가입해 *Isis*를 받아 보았고,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도 1965년 창간호부터 받았습니 다. 쿤의 책도 1964년에 하드 카버 초판을 사서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문사회과학 또는 과학사에 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상당히 넓어 신문을 열심히 보고 시사에 밝았어요. 중학교 때 대전에서 야외 수업을 했는데 공민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으면 나를 불러내 “너 시사 해설 좀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국 노동당 정부의 유화 정책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고등학교 은사들이 재는 사회과학이 적성인데 이과 간 게 참 이상하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화학과 때는 1학년 첫 학기부터 독문과 전공 강의를 들었어요. 수필, 소설, 희곡, 마지막에는 파우스트까지 읽어 독일어 32학점을 땀어요. 그때는 부전공이 없었는데, 부전공을 한 셈이죠. 그 밖에도 역사,

사회학, 인류학, 법학 등 폭넓게 청강했죠.

4. 한국 과학사학자들과의 만남

대학 다니실 당시에는 과학사·과학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는 않았겠네요.

전상운 선생이 내 화학과 3년 선배인데, 바로 뒷집에 살았거든. 그런데다가 전 선생 부인은 내 초등학교 1년 선배이고. 나중에는 내가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그 전엔 형이라고 했어요. 전 선생은 나를 송 형이라고 부르고. 내가 입학할 때 이 분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책을 사왔지만, 전 선생은 일본 과학사학자들 나카야마 시게루(中山茂, 1928-2014), 야부우치 키요시(藪内清, 1906-2000)와 편지로 하다가 1969년인가 홍콩에서 국제 학회 할 때 처음 만났고 나중에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구 당신도 그랬구나? 이렇게 놀라서 둘이 협력 관계로 들어갔죠. 내가 전 선생 책의 영어판을 준비할 때 생물학과 동기 이병훈을 비롯해 몇 사람이 서투른 영어로 번역을 도왔어요.

박성래 선생님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어요?

박성래 선생은 학교 다닐 때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미국 간 다음에 전 선생에게 들어 편지로 사귀었고, 처음 만난 것은 1975년에 처음 귀국할 때였지요.

박성래 선생님은 모르는 사이셨다고요? 물리학과를 나와서 기사를 하다가 과학사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못 들으셨나요?

박성래라는 이름을 도대체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신문에서라도 봤을 텐데 이상하지? 박 선생의 물리학과 동기 장희익 선생은 철학과 강의를 같이 들어 알았고요. 김영식 선생은 그 분의 장인어른 하고 내 화학과 은사가 친구라 그런 희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연락

은 했고 1977년 귀국했을 때 처음 만났죠.

5. 미국 유학 시절

미국 유학은 어떻게 가시게 되셨는지요?

유학은 내가 졸업하고 빨리 갔어야 했는데, 내가 집의 세대주라 책임이 무거웠어요. 누이동생을 먼저 유학 보내고 내가 그 다음에 유학을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늦게 간 셈이에요. 1967년에서 2년.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학사학과 있는 데 열 군데에 원서를 냈는데 그때 과학사·과학철학이 붙어 있는 학교가 프린스턴 하고 인디애너 두 군데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과학사만 있는 학교였지요. 두 군데에서 어드미션이 왔어요. 잔즈 합킨즈 하고 인디애너가 같은 조건이었으면 잔즈 합킨즈를 갔을 텐데 펠로우십을 준다니까 인디애너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디애너 대학은 전혀 몰랐어요. 같은 주에 있는 퍼듀 대학은 잘 알았는데. 퍼듀는 자연과학의 명문이고 화학과 선생님들 여러 분이 다닌 데여서요. 우연히 갔지만 인디애너대 과학사·과학철학과는 최고였어요. 과학사 쪽은 예일 출신의 뉴튼 전문가 웨스트폴(Richard S. Westfall, 1924-96), 위스칸신 출신의 중세 과학 전공 그랜트(Edward Grant, 1926-), 그리고 젊은 교수로는 하버드 출신의 생물학사 전공 처칠(Frederick Churchill, 1932-2017), 천문학사 전공으로 인디애너 출신의 소른(Victor Thoren, 1935-91) 교수 이렇게 네 분이 있었어요.

인디애너에서는 어떤 수업을 들으셨나요?

미국에 가서는 과학사, 과학철학 양 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도 교수가 첫 학기에 너무 내가 고생을 하니까 과학철학은 다 취소하라고 해서 못하게 됐습

니다. 원래 지도 교수는 생물학사·생물철학을 하려고 처칠 교수를 모셨는데, 웨스트폴 교수가 리딩 코스를 같이 하자고 합류하면서 19세기에서 과학 혁명으로 올라갔죠. 필수 과목은 “고·중세과학”(그랜트), “16, 17세기 과학”(웨스트폴), “18, 19세기 과학”(소른), 선택 과목으로 “과학 혁명 강독”, “생물학사”(처칠), “19세기 발생학사” 등을 들었습니다. 사학과 링어(Fritz Ringer, 1934-2006)의 학부 강의 “지성사”를 청강했는데 기막히게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는 독일 태생으로 미국에 와서 다트머스, 하버드를 나왔으나 독일 엑스른트가 강한 영어를 썼습니다. 프랑스 지성사를 전공한 그의 강의는 졸라(Emil Zola)에서 카뮈(Albert Camus)까지 인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강독을 할 때는 서문도 다 못했는데 2주에 칸트의 세 비판을 다 읽혀 놀랐죠. 강의 준비를 못했다고 휴강하는가 하면 분량이 넘칠 때는 밤에 몇 시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오늘 강의는 다 루카치(Györgi Lukacs)의 것이고 내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귀국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내가 계간 『철학과 현실』에 썼어요.¹ 1학년 때 펠로우십을 받았고, 2년 차에는 어시스턴트십을 받았어요. 조교를 계속하려면 연장이 되어야 했는데 내가 텀 페이지를 쓰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 우물우물하다가 마감일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게 그냥 유학을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폴브라이트 재단 여비를 받아 J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거든요. 자비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때 내 집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라 나중에 다시 오지 하고 일단 귀국했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3년 지나서 다시 폴브라이트 장학금 신청을 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영어 시험을 보아 인디애나에 성적을 보냈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점이고, 나이가 많아서 또 깎고. 그래서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80년대 해직 기간에 유학할 수 있었고 그렇게 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선배들이 말려요.

¹ “방황·과오·노력”, 『철학과 현실』 14 (1992), 28-44.

왜냐하면 해직 기간에 국내에 있어야지 복직이 될 기회가 있을 때 외국에 나가 있으면 놓치게 된다고. 그래서 다시 못 갔어요.

인디애너에서 하셨던 연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디애너에서는 논문 없이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네 편을 돌아온 다음 발표했어요. 13세기 연금술 이론,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까지, 라메트리외의 『인간기계론』 분석, 해켈의 일원론적 자연철학입니다. 마지막 논문은 돌아와 서울대 도서관의 책들을 빌려 완성한 것입니다. 경성제대 도서관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 생활이 선생님께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과학을 하려 했고, 과학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지요. 생명론을 졸업 논문으로 쓸 때 뭐라고 주장했나 하면, “철학자들은 생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과학이 생명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건방지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만큼 내가 과학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과학주의자지요, 나쁜 뜻에서. 미국에 갔다 오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나? 내가 미국에 갔던 때가 미국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때였거든요. 68 운동이 그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과학에서는 반문화(counter-culture), 더 나아가서 반과학 운동(anti-science movement)으로 발전하고, 이래서 과학의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환경 운동도 시작되고. 이런 걸 내가 거기서 겪으면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 거기 끼어들어갈 기회는 없었지만 그 영향을 흠뻑 받았어요. 그게 뉴 레프트(New Left)가 주동이 된 운동인데, 독일의 마르쿠제(Herbert Marcuse, 1898-1979),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29-), 모택동(毛泽东, 1893-1976) 사상의 영향, 마르크스주의의 휴머니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된 운동이지요. 나는 4·19 직후에 통일 운동, 좌파 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한테 잘 먹혀 들어갔고. 다른 것보다도 과학을 보는 눈이 확 바뀐 거예요. 과학이 다 해결한다, 이게 아니라 과학에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는 주로 과학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4년 영국 리즈 대학에 가 있을 때 라베츠(Jerome Ravetz, 1929-)를 찾아갔죠. 그 다음 런던에 가서는 『근본적 과학 잡지』(Radical Science Journal)를 주도하던 영(Robert M. Young, 1935-), 서섹스 대학에서는 맥라오드(Roy MacLeod, 1941-)를 만났는데, 셋 다 미국 사람들이예요. 맥카시 선풍이 불 때 환멸을 느껴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죠. 내가 미국에서 겪은 일들이 내 과학관 뿐만 아니라 사상 전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나는 출신이 완전히 우익·보수 배경인데, 그 때의 내 위치는 중도 좌파 정도는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내 공부도 대체로 그 쪽 방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내가 STS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다 그런 영향이라 할 수 있어요.

6. 귀국 후의 상황

뜻하지 않게 1969년에 귀국하시게 되었는데, 귀국 이후의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그때 서울대학교에 교양과정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였고 돌아오면 취직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간단치 않았어요. 교양과정부가 영원히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시 합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교양과정부하고 문리대가 합의를 봐야 나를 쓸 수 있었어요. 밖에서는 나를 미는데, 교양과정부에서 민석홍 부장이 안 듣고, 그 다음에 민석홍 부장이 나를 쓰려고 하면 또 본부 쪽에서 틀어지고, 학과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였는데요. 1976년인가, 조완규 자연대 학장이 물리학과 학과장 고윤석 교수를 불렀어요. 나를 얹혀 놓고, 이 사람을 물리학과에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이나? 사실이다. 물리학과에서 받겠다. 그래서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무슨 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그 위원들이 전부 다 후배들이예요. 이유는 나이도 많고, 전공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안 됐죠. 그 다음에 교정에서 우연히 윤천주 총장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더니 “네가 송상용이냐? 정말 미안하다.” 총장한테 사과를 받으니 조금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러나 서울대에서 나는 큰 봉사를 했어요. 1970년 교양과정부 교무과장

정명환 교수는 자연 계열 교양 과목(“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에서 택2)에 “과학사”, “자연과학개론”을 추가해 나에게 맡겼어요. 나는 “과학사”는 서양과학사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한국 과학을 가미한 강의를 했고 교재는 영어로 된 과학 원전을 뽑아 읽히다가 BBC에서 만든 『교양과학사』로 바꾸었어요. “자연과학개론”은 전반부는 과학철학, 후반부는 과학과 사회를 다루었는데 교재는 험펠의 『자연과학철학』, 『성장의 한계』 등 원서를 복사해서 썼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세미나 “과학과 현대문화”를 개설해 현대 과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논문들을 영어로 읽고 토론하는 인기 과목이 되었습니다. 공과대학에는 “과학철학”을 개설했습니다. 김유신 부산대 명예교수,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 신성철 KAIST 총장이 이 강의를 들었죠. 문리대에서는 내 요청으로 심화 과목 “과학사 I·II”, “과학론 I”(과학철학), “과학론 II”(과학과 사회)를 개설했어요. “과학론 I”에서는 쿤의 『과학혁명들의 구조』 강독을 했지요. 은사 김태길 선생이 나를 철학과에 넣으려고 “국민윤리” 아홉 시간을 강의하라 하셔서 유신 시대에 미대, 사대 이학부, 치의예과, 수의예과에서 민주주의 잘 하는 것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 비판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과학 비판으로 채웠습니다.

1977년 성균관대에 임용되시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떠도는 시기였는데,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죠?

서울의 큰 학교는 내가 안 가 본 데가 거의 없어요. 이화여대에서는 “과학영어”를 가르쳤고, 인하대에서 “문화사”를 강의했습니다. 미국 갔다 온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철학 강의는 안 하고 “자연과학개론”을 주로 했어요. 강의 시간은 많았죠. 소속은 학교마다 달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뭐 별 과 소속이 다 되고.

당시 한국에 “과학사”, “자연과학개론” 같은 수업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나요?

많았죠. “자연과학개론”이 필수인데 제일 많겠 많은 과목이었으니까요. 시한 과학 부스러기를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때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

들에게는 영 재미없어 인기 없는 과목이었어요. 선배들 가운데 과학보다는 역사를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답니다. 화학과 김태봉, 물리학과 권영대, 생물학과 이민재 교수는 “자연과학개론”을 가르칠 때 역사를 조금씩 집어넣어 재미를 보았다고 했어요. 서울대에 교양과정부가 설치되고 고려대, 연세대도 교양학부가 거의 같은 때 생겼는데, 부장들(연대 이철주, 고대 현승중, 서울대 민석홍)이 “자연과학개론”은 과학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현승중 부장이 수첩에 내 이름을 적어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를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연대에서도 이철주 부장이 나를 쓰려고 하다가 반대가 나와서 안 됐다고 저녁을 샀어요.

그러다가 결국 성균관대에 임용되었지요?

1976년에 화학과 은사 이종진 선생이 나를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선생도 대학에 사표 내고 기업으로 갔다가, 기업이 또 재미없게 되어 갈 데가 없을 때였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성균관대 현승중 총장이 내 친구다, 내가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대가 조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총장이 고대에서 왔다고 교수들이 반대해 난리가 났거든요. 나를 쓰기로 했다가 안 되니까 화학과 전임 대우 조교수로 강의를 시켰어요. 한 해가 흘러 1977년 봄 대학 은사 박상운 이공대 학장 방에 들렀더니 “현승중 총장, 이명구 교무처장, 나 셋이 합의를 보았다. 내일 발령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공중전화로 집에 “나 취직했다”고 알렸습니다. 경력이 많아 조교수가 되었으나 학과 소속이 문제였습니다. 화학과, 철학과가 안 받으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는 낙농학과에 집어넣었어요. 내가 화학을 했으니까 공부하면 버터, 치즈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낙농학과에 교수는 없지만 학과장은 있었어요. 학과장이 생물학과 교수인데 문리대 대선배였어요. 선배한테 얘기도 없이 낙농학과에 들어와 께뽀하다고 연구실을 안 줘요. 할 수 없이 강의 끝나면 집에 갔죠. 1년 뒤 낙농학 전공한 교수가 부임해 나는 교양학부로 옮겨야 했는데, 교양학부장은 또 영문과 선배였어요. 그 다음 교양학부가 없어지게 되자 총장이 어디 가고 싶냐고 묻기에 마음대로라면 사학과로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러나 사학과에서 받을 리가 있나. 부결됐죠. 교무처장이 사학과에 찾아가 총장 특명이라고 강제로 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들어갈 때 조건이 붙었어요. 첫째, 사학과

교수 회의에 안 들어온다. 둘째, 사학과 강의 안한다.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나한테 조교 인사도 안 시켰어요. 불편했지만 반년도 안 되어 정치 교수로 해직됐습니다. 성대에서는 “과학사”, “기술사”, “연금술”(팁 티칭)을 강의했고 “과학과 사회”는 서섹스 대학에서 과학사를 공부한 과거처 신만교 국장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림대로 옮기셨지요?

해직되고 삼 년 반 놀고 나서 한림대에 갔는데 최영희 교수가 사학과에 모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 얘기지만 철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 주었습니다. 옮기고 반 년 지난 다음에 본교(성균관대)도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성대 교무처장이 복직하라고 전화했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다른 대학에 갔는데 한 학기 만에 성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미안하다, 나는 못 간다”고 했죠. 한림대 현승종 총장이 나를 데려 갔습니다. 일종의 스카우트인데 원로 같은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만에 현 총장이 나보고 교무처장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학과장도 못 해 본 사람인데 어떻게 교무처장을 하나? 못 한다” 했습니다. “당신은 대학을 아는 사람 아니냐, 하면 된다.” 그래서 교무처장을 했는데 1년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 때가 한창 데모하고 시끄러울 때인데, 의예과에서 두 번 낙제하면 퇴교 아닌가? 그거 어떻게 살릴 수 없나? 당시 학장은 보건사회부 국장 출신이어서 그 양반이나 나나 서투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자. 낙제생들을 일단 제적시키면서 생물학과나 화학과 같이 원하는 과에 편입시켰습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되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쓰레기통이냐? 학생들이 농성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문교부에서 복학시킨 학생들을 전원 제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뒤집어쓰고 물러났거든요. 거기서 나하고 현 총장이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현 총장은 총장 지낸 원로 교수들을 이용해 학교 이름 내고 서강대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잘 기르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젊은 교수들 편이었거든요. 원로 교수들한테 잘못 보

여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성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사학과에서 또 안 받아 주었습니다. 한림대에서는 “과학사”, “과학기술과 사회”, “동양 과학사”, “화학사”, “의학사”, “생명 윤리”, “간호과학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한림대에서 후계자는 안 나왔지만 강원대에서 양해림(충남대, 해석학, 환경 철학)과 김호연(한양대, 서양 과학사) 교수를 얻은 것이 보람입니다.

7. 한국과학사학회 활동

귀국하셨을 무렵 한국과학사학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회가 1960년 7월 16일 출발했는데 그 때 내가 철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화학과 은사 이종진 선생이 나를 두 모임의 창립총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첫 번째가 한국과학사학회였고 두 번째가 9월 4일 한국휴머니스트회였어요. 이 두 모임 참석이 나의 일생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구내 다방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는 김두중(의학사), 이덕봉(식물학), 최윤식(수학), 권영대(물리학), 홍이섭(과학사), 강석영(의학), 이동식(의학), 김태봉(화학), 이종진(화학), 이민재(식물학), 박익수(화학), 한승련(한의학), 전상운(화학) 등이 참여했어요. 김두중 선생이 회장, 이덕봉 선생이 부회장에 뽑혔고 간사는 임채원(서양사), 조형원(약학), 최정봉(치의학)이 임명되었죠. 발기인이 13명이었는데 회원은 20여명이었어요. 회원들은 김두중 회장의 인맥이 다수였고 서울대 의대 의사학 교실 조교로 있던 임채원 간사가 일꾼이었죠. 1962년 조형원의 후임으로 화학과 동기 박택규와 내가 간사로 추가 임명되었어요. 내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니까 동면 상태로 들어간 학회를 맡으라고 해 1970년부터 단독 간사로서 학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학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1971년 전상운 선생의 친구 나카야마가 왔을 때 학회에서 “과학사와 일본 사회”라는 제목으로 초청 강연을 했어요. 그게 학회가 다시 일어나게 된 계

기였어요. 그 때부터 사회의 주목을 끌려고 자주 행사를 만들었어요. 침성대를 비롯해 한국 과학사 쟁점 토론회들을 열었고, 코페르니쿠스 500주년, 아인슈타인 100주년, 산소 발견 200주년, 양자 역학 50주년 기념 모임들이 신문에 크게 보도됐죠. 일반 대중의 계몽에 그치지 않고 관심있는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자들을 발굴해 회원으로 만들었고, 이 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회를 키웠습니다. 과학사가 과학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역사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서둘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 가입했습니다. 과총의 보조금을 받아 학회지를 냈고 모든 학술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박익수, 현원복, 전상운, 송상용, 박성래, 김명자, 김영식 일곱 사람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이 된 것도 과총에 들어간 덕분입니다. 전국역사학대회에 들어가 학회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미술사, 경제사와 나란히 전국역사학대회를 두 번 주관했고 해마다 분과 발표회를 하게 된 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과학협의회 가입은 실패해 내가 개인 자격 회원이 됐을 뿐입니다.

학회 활동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1984년 서울대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과사철)이 창설된 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영식 교수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과사철은 장희익 교수가 참여했고 이인호(서양사학과), 이명현(철학과) 교수 등이 지원했으며 석사 과정으로 출발해 1988년부터 박사 과정을 뽑았습니다. 나는 70년대 후반부터 과학사학과 설립안을 만들어 대학 총장들과 문교부 장관들을 찾아 다녔는데 친구 김숙희 장관의 용단으로 과학학과 신청을 받은 결과 1995년 전북대, 고려대, 국민대, 중앙대에 과학학 과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전북대는 오진곤 교수가 처음으로 학부에 과학학과를 만들어 서울대 과사철 출신의 전임 교수 7명을 확보했고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는 한국과학문명사총서를 내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과학학 협동과정에 과학 사회학, 과학 관리학, 과학 언론학 등 세부 전공을 만들어 의욕을 보였으나 전임 교수를 쓰지 않아 침체 상태입니다.

대학원 교육 이외에 또 다른 분기점은 없을까요?

한국과학사학회에는 넓은 뜻의 과학학(science of science) 또는 과학기술학(STS)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흥렬, 장희익, 김유신, 신중섭, 정병훈, 김국태, 최종덕 등 철학자들과 함께 1995년 따로 모여 한국과학철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2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사회적 과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가 과학사회학자 김환식 교수와 함께 과학기술학회를 만들려다 못했는데 고려대 사람들이 2000년에 한국과학기술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나중에는 홍성욱, 박진희, 송성수, 박범순 등 과학사학자들이 이 학회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과학 비판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과학기술민주화모임을 하다가 시민과학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참여연대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센터가 독립했을 때 내가 이사장이 되었는데 일도 못하고 문을 닫아 섭섭합니다.

8. 환경 운동, 생명윤리 운동

환경 운동에는 어떻게 관여하시게 된 건가요?

내가 60년대 미국에서 활발한 환경 운동을 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때 환경 문제가 떠오른 한국에 와서 카머너(Barry Commoner), 듀보스(René Jules Dubos) 같이 환경 운동의 선봉에 선 사람들을 소개하는 글을 많이 썼거든요. 유대-그리스도교적인 자연관이 환경 위기의 원인이라는 중세 기술사학자 화이트 2세(Lynn White, Jr.)의 명제, 그리고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것도 나였습니다. 공해추방연합의 최열 대표가 1993년에 새로 환경 단체들을 합쳐 출발하는데 같이 하자고 전화를 했어요.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대학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을 했지요. 동강, 새만금 반대 운동, 반핵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환경철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도 열성 회원이었지요.

생명윤리 관련 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1995년 중국의 과학철학자 추런종(丘仁宗)이 베이징의 동아시아생명윤리회의에 오라는 초청이 왔어요. 윤리학자들에게 연락했으나 가 보니 아무도 안 왔

더군요. 동아시아생명윤리학회가 태어났고 일본의 과학철학자 사카모토 하쿠다이(坂本百大)가 회장에 뽑혔습니다. 3년 뒤 의사, 과학자, 법학자, 철학자들을 모아 한국생명윤리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윤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임원을 맡는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나를 회장으로 뽑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부회장을 맡고 회장은 철학자 박이문 선배를 모셨습니다.

복제 기술자 황우석이 뜨기 시작하면서 생명윤리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황우석의 첫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렸을 때 나는 한국생명윤리학회장으로서 편집자에게 윤리 문제를 지적한 항의 서한을 보내고 황우석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생명 공학 개발에 눈이 먼 노무현 정부는 황우석을 과학 영웅으로 만들어 과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PD 수첩>이 황우석의 논문이 가짜임을 폭로하고 젊은 과학자들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아시아생명윤리학회장으로서 터키의 아시아생명윤리회의와 스페인의 국제생명윤리회의에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의 COMEST (Commission mondiale d'éthique des connaissances scientifiques et des technologies,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3년 일했습니다. 코메스트는 정보통신 윤리, 민물 윤리, 외계 윤리, 나노 윤리, 기후 변화 윤리 등을 다루었습니다. 나는 과학기술자 윤리 강령 담당이었고, 그것을 만들려고 옛날 윤리 강령을 수정한 논문을 만들어 지역별 공청회도 하고 힘을 썼으나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몫 후임은 김환석, 홍성욱, 이상욱 교수가 차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9. 정년퇴임 이후의 삶

정년퇴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2003년 정년한 다음 처음 4년은 코메스트 위원과 겹치지만 한양대 석좌교수와 한예종 객원 교수를 몇 해 했습니다, 강원대, 외국어대에서도 교양에서 대학원까지 여러 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들이 전국 고등학교에서 하는 진로 지도 강의를 많이 했고 노인 대학, 출판사 교양

강의도 즐겁게 합니다. 전남대와 부산대에서 주제를 받아 한 특강들은 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5월에는 한양대에서 근본과학운동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의 초청 강연도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날 못 쓴 논문들을 써야겠습니다.